

3일간의 사랑(대부서기)

김 옥 동 · 요한

가톨릭대학교 성 바오로병원 봉사자



하느님을 모르던 한 사람이 영세를 받을 때 그 사람의 이승에서의 삶은 물론 영혼마저 책임지고 죽어서까지 기도해 줘야 하는 <대부서기>는 마음 놓고 선뜻 결정할 일이 아니다. 본당 영세식이 있기 한두 달 전부터 대자될 사람들은 자기를 성당으로 이끌어준 사람을 대부로 모시는 게 거의 상례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스스로 입교한 사람들은 대부 구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어렵게 부탁하면 “난 대부 설 자격이 모자라는 사람이라...” 얼버무리며 자리를 피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대부서기는 거절할 수가 없다.

대부서기를 은연히 강조(?)하시는 벨다 수녀님의 맑은 눈을 보면 아무 말도 못하고 “예”하면서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수녀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 참 희한한 일이다. 하느님을 체험하고 성령 가득하여, 그분의 딸로 이 세상을 살아가니 수녀님의 목소리는 흡사 하느님의 소리 같이 들려서 인 것 같다. 이냐시오 형님과 루가 형님과 도밍고 형제 그리고

호스피스 총 팀장 윤용성 프란치스코 형제와 나는 호스피스 봉사를 하는 날까지는 이 험하고도 아름다운 굴레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2005년 가을 어느 날, 새벽 일곱 시에 수녀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나는 밤 장사를 하는 직업이라 일어나기 싫었지만 환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수녀님의 말씀에 아침의 꿀처럼 단 잠을 포기하고 오토바이에 몸을 실었다. 임종이 임박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병원에 도착하였더니 후두암 환자 임○○ 씨는 분별력이 아직 남아 있을 뿐 아니라 필담으로나마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그는 나보다 연배가 위였고 공직에 고위관리로 계셨던 분이였다. 이 세상에서 처음인 <주님 모시기>는 그리 오래지 않아 끝났다. 온몸의 힘이 다 소진된 상황에서도 눕지 않고 일어나 앉은 채 매우 겸손하고도 경건한 “대세”였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신 당신의 용기에 감사한다.”고 말해주고 폭 쉬라면서 돌아왔지만 영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다음 날이 마침 나의 봉사일이라 오후에 ? 도착하여 보니 이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하느님의 아들이 되어 있었다. 죽음에 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그가 아주 맑게 웃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다가가자 무척 기다렸다는 표정으로 자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날을 708호실(임종을 위한 방) 환자 침대의 밥상을 펴놓고 달필(達筆)로 빠르게 써내려갔다. 이 순간이 지나가면 다신 고백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는 듯 한 임종의 가까움을 나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녀님과 대부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하느님을 모르고 한 마리 짐승처럼 살다 떠날 뻔 했습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자 “어젯밤이 꼬박 새도록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다가 이렇게 병을 얻어 떠나야 하는가? 아직 할 일 많이 남아있는데... 이 세상에서 출세도 했고 남보다 앞서 돈도 많이 모았고, 남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랐고, 번드레한 아들 딸 모두 잘 되어 자식들 낳고 무엇 하나 부러움 없이 살아왔지만 생각해 보면 나는 나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생을 나만 사랑했고, 나만 바라보고 평생을 한 마디 불평하지 않고 살아 준 사랑하는 아내와 유유자적 알프스며 아프리카며 나이가가라 폭포 등 온 세상 둘러보려 했는데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지름길로 코앞에 와있어 엄청나게 두려웠는데, 하느님을 알고 난 어제 이후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지는 나를 보고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소리 나지 않게 빙그레 웃었더니

“하느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나를 이렇게 평안하게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요, 잘 하셨습니다, 작은 들짐승도 사랑하고 자식 낳을 줄 알지만 그것들은 양심이라는 거울이 없어 본능대로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뿐이지요. 선과 악을 아는 인간만이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느님의 아들딸이니까 사람이 위대하지만 자기를 만들어준 아버지를 모르고 떠나는 것은 참 불

행한 일이에요.”

“대부님! 이제부터라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몸으로도 뭔가 할 게 있을까요?”

“기도 하세요, 모든 걸 뉘우치셨으니 하느님께서 무척 좋아하실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6십 년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마음이 편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님으로 인해 나는 저 세상이 어둠 속에 묻혀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오히려 평화와 사랑의 빛이 빛나는 곳이란 걸 알았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글씨를 쓰며 나를 보는 그의 눈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만일 내가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버리고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가 불쌍한 이웃을 도우며 살고 싶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의 모든 일은 아내와 자식에게 맡기고 ‘봉사하면서 살라’고 당부하고 떠나겠지마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나의 가슴 한 귀퉁이에서 활화산처럼 용솨음치는 뿌듯함. 이 감정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이<대부서기의 즐거움>인가?

다음날 아침 11시에 그는 가족과 나의 손을 잡고 우리들의 간절한 임종기도 속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웃으면서 안겨갔다. 그의 떠나는 모습은 참으로 평화로웠다. 3일간의 사랑이었다.

내가 맡아 본 최고의 향기

정영미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

당신이 경험한 향기 중 어떤 향기가 가장 좋은 것인지 지금 생각하라면 생각이 날까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 사람만의 향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껴본 향기 중 가장 아름다운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83세의 위암을 가진 할머니이지만 환자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온 우아한 할머니 였어요. 아프기도 하겠는데 항상 웃고만 있는 푸근한 할머니... 호스피스가 뭘지 아직 확실히 체계가 잡히지 않은 저에게 말기 암 환자의 여생을 편안히 보내 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시다 그냥 말기 암 환자는 통증이 심하니 통증조절만 해도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 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을 거치면서 호스피스 대상자인 말기 암 환자에게는 통증보다 더 심한 마음에 쌓인 분노와 감정을 표출할 기회도 중요하고 가족간의 화해와 더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가지는 죽음에 임하는 자세를 어떻게 수용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영적인 주님을 받아들이면 더 마음 편하게 죽음에 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 옆에는 항상 며느님과 손자들이 있었습시다.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냥 보기에는 행복만 있던 가족이었는데 그 속에서는 말 못할 사연이 많았습니다.

도망간 며느리, 혼자인 아들, 손자 그리고 형제 들끼리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할머니에게 주어진 해결해야 할 과제들 이었던거죠.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거치면서 그런 과제가 미련이 남았는지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 말 할수 없을 만큼 잘 이겨냈습시다. 이제는 세상에 안 계시는 분이지만 그

분이 아프시면서 가족간의 갈등은 많이 해결이 된 것 같 이 보였습니다. 그냥 환자가 있다고 몇 십 년을 갈등 속에서 살아온 가족들의 꼬인 것이 해결이 되지는 않지요.

진실한 주님의 믿음을 주는 성직자, 환자의 강한 의지 그리고 열심히 노력 하려는 가족, 통증조절을 해주면서 환자의 의지를 지지해주는 의료인, 경제적 문제 가족의 문제를 상담 해주는 사회 사업가, 없는 시간 쪼개어 열심히 봉사하시는 자원봉사자님 이 모두가 말기 암 환자의 여생을 편안히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해결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진 향기가 있다고 하지만 모두 다 좋은 향기는 아니겠지요. 보는 사람을 편하게 하고 함께 있으면 행복을 주는 향기 그런 향기를 그 할머니는 가지고 계셨어요. 임종을 맞이하고 사후처치를 하면서 할머니를 보내는 그 시간을 전 같이할 수 있었습시다. 편안해 보이는 모습 그냥 자는 모습 이었습니다. 몇 개월을 같이 보낸 환자이기에 꼭 제 할머니를 보내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몇 년을 내과 병동에 있으면서 말기 암 환자의 임종을 맞이했지만 또 한사람이 죽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호스피스를 알고 호스피스병동에서 말기 암 환자를 보내는 입장은 또 틀렸습시다.

어떤 맘으로 죽음을 맞이했을까 왜 그렇게 고통 받는 표정으로 가셨을까. 그 동안 환자에게 해주지 못한 일들이 많이 떠오르기만 했습니다. 아직 호스피스환자를 대하는 방법을 안다고 할 수 없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알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남에게 편안과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호스피스의 모든 환자와 가족들 함께 임하는 호스피스 팀 모두 힘내세요. 파이팅!